

신안군 청정 왕새우양식장 종자 5억마리 입식 완료

지역 배양장 3곳서 종자 직접 공급... 폐사율 저감·출하시기 조절 6000여t 생산 예상...스마트양식클러스터·유통센터 건립도 순조

신안군이 왕새우 전국 최대 주산지로서 축제식 왕새우양식장에 5억 마리의 종자 입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식에 돌입했다. 신안 왕새우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풍부한 갯벌의 플랑크톤과 약리 작용을 하는 게르마늄이 함유된 청정지역에서 생산돼 매년 전국 주문자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잇고 있다.

올해에도 전체 입식량의 42%가 2월 말부터 지역 111개소 중간 육성장에서 약 1-2개월가량 1.0~1.5g 정도 키워낸 종자가 축제식 양식장에 입식됐다. 이에 따라 입식 초기 폐사율 저감과 출하 시기 조절, 질병 예방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중간 육성장부터 입식 초기폐사로 인하여 일부 어가에서 많게는 4-5회 재 입식이 이루어졌으나 올해에는 폐사 없이 정상적인 입식이 완료됐다.

따라서 그 어느 해보다도 작황이 좋아 자연 폐사율 약 40% 등을 감안하더라도 생산량은 대략 6000여 t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래없이 지역 내 새우 종자 배양장 3개소에서 4억 마리 이상 종자를 직접 생산해 신안 지역 양식장 입식량의 40%인 약 2억 마리를 공급했다.

이로 인해 운송비 절감은 물론, 적기 입식과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한 어가들은 폐사율이 적고 더욱 더 안정적인 생산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신안군은 현재 새우종자 전용 생산시설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300억원)과 왕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60억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신안군이 새우양식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2023년도에는 268어가(836ha)에서 3100여 t(510억원)을 생산해 전국 양식새우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새우 종자 전용 생산시설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300억원)과 왕새우 산지 거점 유통센터 건립(60억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우리 군 새우양식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최대 주산지답게 친환경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축제식 새우양식장에서 입식 후 수치를 가동하고 있다.



무안군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마마학당' 수강생들이 최근 열린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마마학당' 서 만학도 꿈 이뤘어요

무안군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65세 이상 여성 수강생 졸업식

무안군이 65세 이상 여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마마학당'을 열어 한 달간 장정을 마쳤다.

무안군은 최근 몽탄면 꿈여울다목적센터에서 무안군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마마학당'의 1기 수강생들과 졸업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수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여성 주민으로,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여든이 넘는다.

무안군은 마을공동체 시군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공동체 엄마학교'를 열었다.

지난 4월29일 수업을 시작한 20차례에 걸쳐 노래 교실과 율동, 규방 공예, 공예, 소풍, 생일 파티, 천연화장품 만들기, 예술 타일 만들기, 허브 공예, 고무신 그림, 반려식물 키우기, 추억의 영화관람 등을 진행했다.

무안군 보건소와 함께 하는 '내 몸 바로 알기,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거리예술, 무안경찰

'범접 예방-보이스피싱방지', 무안소방 '응급처치', 몽탄초등학교 '사랑나눔', 초당대학교 뷰티메이크업 학교의 '졸업사진 메이크업' 등 지역기관들과 협업을 이뤄냈다. 이달 10일에는 찾아가는 거리예술 공연 '식영정 음악회'로 봄 소풍을 가기도 했다. 수강생들은 연두색 교복을 입고 학창시절로 돌아갔다.

마마학당 수업을 마친 1기 수강생들은 최근 졸업식을 열어 한 달간 장정을 되돌아왔다.

졸업식에서는 현경면 바나나리와 몽탄 꿈여울승강구단 등 공연이 펼쳐졌다.

오는 4월 마마학당 수강생들은 졸업여행을 떠난다. 무안군은 올해 총 3개 기수의 마마학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부터 시작하는 2기는 원하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 마을공동체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진행된 마마학당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마마학당을 확대 시행해서 많은 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무안군 역점사업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속도 낸다

농림부 7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내 발주 444억 투입 2027년 준공

무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탄력을 받게 됐다.

무안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부지 7만여㎡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인근 현경면 양학리 일원 21만여㎡에 총사업비 444억원이 투입된다.

이 곳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과학영농 기반시설, 신기술 실증시험포 등의 첨단 농업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선다.

무안군은 기후변화와 연작 장애 등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도농교류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



무안 첨단농업복합단지 조감도.

치를 도시 소비자와 공감하기 위해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지난 2021년부터 농업분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대상 부지의 약 98%가 농림지역으로 묶여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수적이었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진정성 있는 설명과 끈질긴 노력으로 7만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최종 승인받았다.

무안군은 당초 부지의 위치 변동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와 조성 중인 국립 파속채소연구소 등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비 지원도 원활하게 진행돼 사업기간 내 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안군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설계 등 각종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공사를 발주해 오는 2027년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이대 무안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장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지역 농업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군 농촌왕진버스 운행 주민 400명 건강 살핀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왕진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 400여 명의 건강을 살피게 됐다.

영암군은 농한기인 올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덕진·도포·화산·미암면의 주민 400여 명을 살피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의료인이 취약 지역을 찾아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은 총사업비 4800만원을 확보했다.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마을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농촌왕진버스가 일정에 맞춰 해당 마을을 방문해 진료한다.

농촌왕진버스에서는 농작업 질환을 포함해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 돌보미 추천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왕진버스가 영암의 한 마을을 찾아가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한편 영암군은 여성 농업인 건강증진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600명의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된 농작업으로 각종 질환에

노출돼 있지만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영암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현 기자 jbh@kwangju.co.kr



해남 산이면 농가에서 밤호박을 수확하고 있다.

'공중 재배' 해남 미니 밤호박 출하 시작

땅갈 해남의 대표 특산품인 공중재배 미니 밤호박의 출하가 시작했다.

지난 5월 중순 수확을 시작한 미니 밤호박이 1주일 가량의 후숙기간을 거쳐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인기가 높다.

해남에서 생산되는 미니 밤호박은 시설하우스 내 친환경 덕 시설을 이용해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재배돼 놀린 자국 없이 모양이 예쁘고, 품질이 월등하다.

특히 밤맛이 나는 우수한 식감으로 '밤호박'이라는 자체 상표를 달고 출하가 되는 명품 특산물로

꼽히고 있다. 해남 밤호박은 일반 단호박에 비해 영양가가 높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B2, C 등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05년 미니 밤호박을 근대화작목으로 지정, 생산과 가공, 유통 등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2기작 재배, 가공식품 개발 등 기술 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는 관내 300여농가, 80ha에서 밤호박을 재배, 115여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돼 문화복지센터 신축 등 사업을 펼칠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군 '농산어촌개발' 공모 8년 연속 선정

소안면 진산리 생활 여건 개선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에는 완도군의 소안면 진산리 '산들바람 진산권역'이 이름을 올렸다.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부문에서 완도군은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귀어인 등 외부 인구 유입, 섬 관광

활성화 등을 꾀한다.

완도군은 지난 2018년도 보길권역을 시작으로 약산, 총동, 고금, 금당, 금빛안, 봉선권역에 이어 진산권역까지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산들바람 진산권역'의 세부 사업으로는 문화복지센터 신축, 활력 쉼터 조성, 노후 경로당·부녀회관 개선, 진산 해변공원 조성, 슬레이트 지붕 개량·담장 정비 사업 등이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8년 연속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들의 지역 발전 염원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 보다 살기 좋은 어촌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증도서 7~8일 이틀간 밴댕이축제

회·무침 맛보고 바지락잡기 체험

신안군 증도에서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제14회 밴댕이축제가 열린다. '오뉴월 밴댕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로서 회, 무침, 구이를 맛볼 수 있다.

증도 설레미마을체험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갯벌 바지락잡기체험, 맨손장아잡기, 갯벌페스티벌 미인대회 등이 진행된다.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전국 최초의 갯

벌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랍사르습지로 공식 인증받았다. 전국 최대 규모인 태평염전과 근대 문화유산인 소금박물관으로도 유명하다.

신안군은 매년 10여 종의 제철 수산물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5월엔 낙지와 홍어, 강달이(강다리)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6월 중엔 밴댕이 축제와 함께 병어축제도 열린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